지역 메아리

김제시, 종합정비사업 국비확보 총력

김제시(시장 박준배)가 재해예방사업인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공모사업) 국비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기존에 정부 부처별로 추진하던 단위사업인 행정안전부의 재해예방사업, 환경부의 하수관거 정비사업, 국토교통부의 하천정비사업을 공동 추진하여 중복시설 최소화 및 예산 절감 등을 통해 투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사업이다.

김제역 일원이 태풍과 집중호우 시 매번 침수됨에 따라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총 사업비 471억원 규모의 김제역지구 풍수해위험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제시는 지난 19일 행정안전부 공모사업 현장실사 평가위원들에게 김제역지구 풍수해위험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했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이 완료되면 김제역 주변 주택, 상가 및 농경지 침수로 인한 생명 및 재산 피해 우려가 해소되어 시민의 생활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운주면, 기초생활 육성사업 착수

완주군이 운주면 기초생활 육성사업에 착수했다.

완주군은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선정된 '운주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기본계획 착수보고회를 최근 운주면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보고회에서는 완주군 도시개발과, 운주면, 추진위원회를 비롯한 주민 및 용역업체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여해 사업 기본계획 및 추진방향 등을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운주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은 운주면 장선리 면소재지 일원에 40억원을 들여 올해부터 2022년까지 △생활문화공동체센터 등의 기초생활기반확충 △통합가로경관개선(간판디자인, 경관조명, 예술경관조성, 안전한보행쉼터 및 주차장) 등의 경관개선 △주민공동체 교육, 공동체 리더양성, 선진지 답사 등 지역역량강화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최경태 추진위원장은 "지금까지 공모에 선정되는데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위원회 및 주민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최충식 도시개발과장은 "운주면에는 월당·월촌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완주=이중복 기자

전주항공대대 헬기노선 반대

완주군, 이장연합회 "완주상공 헬기운항 전면 중단" 규탄 결의문 발표

전주항공대대의 헬기 소음에 대한 분노가 완주군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다.

완주군 이장연합회(회장 황호년)는 20일 '전주항공대대 장주노선 이기적 꼼수 규탄 결의문'을 발표하고 "국방부와 전주시의 일방적이고 밀어붙이기식 항공대대의 헬기 운항에 대해 깊은 유감과 거센 분노를 표한다"며 "완주 상공의 헬기 노선이 철회될 때까지 반대 투쟁을 강력히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장연합회는 이날 "전주시는 숙원사업이었던 항공대대를 전주시 송천동에서 외곽인 도도동으로 이전해 전주 동부권 발전의 초석을 다졌다"며 "하지만 완주군은 이서면 주민들의 지옥 같은 고통과 함께 혁신도시를 포함한 서부권에 치명적인 개발장애를 안겨 주었다"고 성토했다.

이장연합회는 "올 1월에 준공한 항공대대는 기초 설계부터 장주노선이 명확히 정해져 있었음에도 철저히 숨겨왔다"며 "전주시는 대한민국 소음 법규가 관대함을 이용해 법적으로 크게 위배되지 않음을 무기로 밀어붙인 게 확실하다"고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이장연합회는 완주군 내 537개 마을을 대표하는 13명의 이장으로 구성돼 있다.

완주군 이장연합회는 20일 '전주항공대대 장주노선 이기적 꼼수 규탄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장연합회는 특히 "완주군민 누구도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시행자인 전주시와 이전주관자인 국방부가 합의를 통해 사업을 진행했다"며 "15만 자족도시와 혁신도시 시즌2를 꿈꾸며 땀과 눈물을 흘려온 10만 완주군민을 보며 전주시와 국방부는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까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완주군 이장연합회는 "협치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방부와 전주시가 합작이라도 하듯 완주군을 상대로 폭압적이고 기망적인 행동을 했다는 점에서 10만 완주군민의 주체성 상실과 자존감 추락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완주군 상공에 단 한 대의 헬기도 운항할 수 없음을 국방부와 전주시에 단호히 경고한다"고 주장했다.

이장협의회는 이날 △국방부와 전주시는 사태 진실을 밝히고 밀실행정을 주도한 관련자를 처벌할 것 △전주시와 국방부는 신속하게 완주군 상공의 헬기 노선을 철회할 것 등 2개항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하고 전주시와 항공대대, 국방부 등을 상대로 헬기노선 반대 투쟁 전개를 강하게 결의했다. /완주=이중복 기자

'찾아가는 마음행복 상담소를 찾아주세요'

김제시,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사업 공모선정

김제시(시장 박준배)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2019년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사업 공모에 '찾아가는 마음행복 상담소' 사업이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7000만원을 확보했다.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사업은 타자치단체의 우수 혁신사례를 도입하고자 하는 자치단체에 예산을 지원하여 혁신사업들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도록 시행하는 정부혁신 시범사업이다.

김제시는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 주관으로 보건소, 보건지소, 소방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과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동상담 전용차량 구입·운영으로 관내 경·중증 정신질환자, 자살고위험군 위기 대상자에게 서비스 접근성을 향상하고 정신질환 예방과 관리를 통해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월 2회 정신건강 의학 전문의의 읍면동 마을회관, 마을 쉼터 등을 순회 방문하여 주민이 원하는 현장에서 상담이 진행되고 1:1 정신건강 상담을 통해 조기발견과 예방활동과 더불어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 집중상담 프로그램과 맞춤형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 등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주민 인식개선 활동, 홍보, 캠페인, 인식도 및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향후 농촌지역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정신건강 상담, 자살고위험군 상담, 24시간 응급위기상담, 심리정서 지원활동, 재활까지 원스톱 정신건강 서비스 체계로 확장해 나아갈 계획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만경읍 복지기동대, 저소득 독거노인 대상 가스안전차단기 설치

김제시 만경읍 복지기동대(기동대장 허진섭)는 지난 19일 저소득 독거노인 등(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8가구를 대상으로 화재 예방 가스안전차단기를 무료로 설치했다. 가스안전차단기는 사용자가 버튼을 누르면 지정시간 후 자동으로 가스중간밸브를 닫아주는 장치로 노약자와 거동 불편자의 화재 발생을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이번 활동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복지기동대원들이 소외계층 가구에 직접 방문하여 가스안전차단기를 설치하였으며 향후 6월 내 추가적으로 저소득 독거노인 등 22가구에 가스안전차단기를 설치할 예정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봉동생강 농업유산 지정 총력

민 · 관 · 학 농업유산지정 신청 사전 점검회의

완주군이 봉동생강 농업시스템을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총력을 기하고 있다.

20일 완주군은 중앙도서관 문화강좌실에서 민·관·학계 관계자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사전 점검회의를 가졌다.

사전 점검회의에는 전라북도, 완주군 외에도 완주봉동생강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추진위원회,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전북대학교 인문대학 교수, 문화연구원, 특화사업단 사무국장)들이 참여해 봉동생강 농업시스템의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신청 사전 점검 및 '봉동생강' 명칭 관련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

봉동지역은 한국 자생생강 최초 시배지로 1900년대 유통 중심지일 때만 해도 전국 생강의 60% 이상을 차지했지만 봉동지역 생강굴(900여개)중 75%이상이 방치 또는 매몰되고 현대화에 밀려 사라져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토종생강, 생강굴 등 생강과 관련한 유무형의 유산에 대한 체계적 보존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완주군은 봉동생강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요청을 위해 완주봉동생강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추진위원회 구성, 생강굴 전수조사, 봉동생강 농업유산 보전을 위한 현장 토론회 등을 진행해 미비점을 보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류했다.

이용국 완주봉동생강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추진위원장은 "사라져가는 봉동생강 농업시스템의 보존과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해 반드시 농업유산 지정이 필요하다"며 지역 주민의 주민참여의지를 다졌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봉동생강 농업유산지정 신청서의 취약점을 보완해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검토하고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 이달 중 신청을 완료하고, 9월 국가중요농업유산에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완주=이중복 기자

김제시,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교육생 모집

26일까지 방문접수 또는 이메일 신청

김제시(시장 박준배)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지역내 사회적경제기업을 적극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사회적경제 아카데미'를 처음으로 운영한다.

사회적경제 아카데미는 사회적경제의 이해, 제도 등 정책 설명과 인사, 노무 등 실무 교육, 사회적경제기업 창업을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 교육, 지역 사회적기업인 (사)글로벌투게더김제, 농업회사법인(유)새만금유기농꾸지뽕에서 참여해 기업 성공 노하우와 경험을 소개한다. 또한 아카데미 수료자 중 사회적경제기업 창업 및 전환 희망자를 대상으로 기업현황 및 수익구조 분석, 비즈니스 모델 구축 등 컨설팅도 실시할 예정이다.

아카데미는 6월 27일~28일, 7월 4일~5일(목·금 오후 2시~6시) 4일간 고용복지+센터내 고용·복지공동교육관 교육장에서 무료로 진행될 예정이며, 사회적경제에 관심있는 개인, 법인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교육희망자는 6월 26일까지 방문접수 또는 이메일(neverever918@korea.kr)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김제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경제진흥과 경제지원담당(063-540-3451)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번 사업은 사회적기업 자치단체 지역특화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으며,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전라북도 사회적기업 권역별 지원기관인 (사)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와 협약을 체결하여 김제시의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노력할 예정이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이번 사회적경제 아카데미를 통해 사회적경제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관심을 높여 사회적경제 조직이 확산되기를 바라며, 지역특성이 반영된 사회적기업을 발굴?육성해 취약계층에게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 국번없이 112
방문 : 관할 지역아동보호 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